

신한금융, 회장 직속 '룬샷' 조직 신설... 디지털 혁신 사활

〈Loon shots·미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뜻〉

**하반기 이사회 비대면 워크숍
업계 최초 '제로 카본 드라이브'
저평가된 추가회복 방안 논의**

신한금융그룹이 조용병 회장 직속으로 '룬샷(Loon shots·미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미래 준비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이사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 이사회는 대면, 해외 이사회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그룹 최고경영자(CEO) 육성호부군(은행·카드·금투·생명·오렌지·캐피탈·자산운용CEO) 전원이 참석해 이사회와 함께 내년 전략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오전에는 내년 경제전망을 시작으로 '2021년 그룹 전략방향'과 함께 '재무계획 수립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디지털 플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준비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이사회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랫폼 혁신 전략 등 핵심전략 아젠다를 집중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신한금융은 이날 워크숍에서 내년 주요 핵심전략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경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 탈(脫) 석탄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금융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



지난 6일 신한금융그룹의 '2020년 하반기 이사회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내년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한금융

정할 계획이다. 또 신(新)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대출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탄소배출 총량을 제로(Zero)로 만들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향후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추구하는 진일보한 기후정책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전략방향 토의 후 이어진 '재무 계획 수립 방향성' 발표 시간에 가장 중심이 됐던 주제는 저평가된 신한지주의 밸류에이션(Valuation) 회복이었다. 회의 참석자 모두가 초저금리와 코로

나19 여파로 연초 이후 급격히 하락한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격렬한 토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금융권 1위의 수익성, 저평가된 주당순자산가치(BPS)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경상수익력 방어·개선 ▲중간배당 등 탄력적 자본정책 ▲트렌드·환경 변화에 따른 신사업 기회 발굴 ▲능동적인 시장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는 것에 대

해 논의했다.

오후 핵심전략 아젠다를 집중 토론하는 시간에는 '디지털 플랫폼 혁신 전략'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은 신한금융이 그룹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로 박철 이사회 의장이 직접 주제로 선정할 만큼 이사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분야였다.

현재 신한금융이 가진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는 등 2시간 여에 걸친 치열한 토론 나섰고, 지주사내 조용병 회장 직속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룬샷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룬샷 조직'은 본부장급 추진단장 및 실무자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실행력 강화를 위해 워크숍 다음날인 7일부터 곧바로 가동하기로 했다.

'룬샷 조직' 주도하에 만들어질 신한금융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금융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별성을 갖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비(非)금융 관점에서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씨티은행장 후보자에 유명순... 단독 추천

〈기업금융그룹장 겸 은행장 직무대행〉

**국내 민간은행 첫 여성은행장
27일 주총·이사회 거쳐 선임**

한국씨티은행장에 유명순 기업금융그룹장 겸 은행장 직무대행이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유 후보자는 씨티은행 역사상 첫 여성은행장으로 국내에선 두 번째 여성은행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7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명순 현 기업금융그룹장 겸 은행장 직무대행을 차기 은행장 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오는 27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은행장에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유 후보자는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씨티은행서

울지점 기업심사부 애널리스트로 입사했다. 이후 씨티은행 기업심사부 부장, 다국적기업부 본부장,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등을 지낸 뒤 2014년 JP모간 체이스은행 서울지점장으로 부임했다. 2015년 기업금융 수석부행장으로 복귀한 뒤 지난 8월부터 은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직무대행직을 겸해 왔다.

유 후보자 추천에는 오랜 경험을 통해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경험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점이 높은 점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기업금융과 글로벌 사업 경험을 통한 비이자 이익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씨티은행이

최근 늘려온 가계대출의 연체율 관리가 과제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올해 상반기 총여신은 23조4580억원으로 가계대출(11조8804억원)은 50.4%에 달한다. 기업대출(9조7446억원)이 지난 2018년(11조1934억원)대비 12.9% 줄어든 반면 가계대출은 5.09% 증가했다. 고정이자여신비율(NPL) 비율은 0.71%로 지난 2018년(0.70%) 대비 0.01% 포인트 증가했다. 고정이자여신은 3개월,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비율이다. 상반기 시중은행이 0.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기업금융 및 자산관리(WM) 비즈니스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과제다. 감소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장 겸 은행장 직무대행 /한국씨티은행

하는 씨티은행의 이자수익부분을 매우 고 있는 것이 수수료 중심의 비이자 수익부분이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신탁보수와 보험판매수수료, 외환과생관련 등으로 전년 대비 57.8% 증가한 1770억원의 비이자 수익을 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에 최적의 상품을 제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5@

**우리은행
越 글로벌 수탁업무 수행**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현지 수탁은행 인가를 받은 이후 베트남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글로벌 수탁 업무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베트남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펀드는 외국계은행에 투자자산을 위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탁업무 개시로 국내 자산운용사 및 연기금 등 주요 투자자는 우리은행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수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개시는 우리은행이 지난 7년간 국민연금 주식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업무 노하우, 고도화된 시스템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영석 기자

하나銀, 자비스와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

세무신고 대행 등 제공

하나은행이 인공지능 경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비스엔빌런즈와 업무 제휴를 통해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 오픈API를 기반으로 자비스에서 제공되는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는 계좌와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고 확인하는 급여이체 업무를 몇차례의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자비스는 회계정보 확인부터 파트너 세무사를 통한 세무신고 대행까지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업무제휴로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장(왼쪽)과 김범섭 자비스엔빌런즈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나은행

자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종업원 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이체 업무까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KB국민카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오늘부터 입사지원

KB국민카드가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무 10명과 정보기술(IT) 직무 10명 등 총 20명 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 검사와 필기 전형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면접전형 역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입사지원은 학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 없이 채용 홈페이지에서 오는 8일부

터 19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입사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역량 검사를 진행하며, 지원 직무 유형별 온라인 필기 전형은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실무자 면접 등 면접 전형을 통해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서는 지원자들이 가진 다양한 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기반의 역량 검사를 도입했다"며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우리카드
간편결제 이용 고객 이벤트**

우리카드는 스마트앱·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마트앱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응모 후 스마트앱 푸시 동의를 한 우리카드(법인·기프트카드 제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치킨 교환권(100명), 커피 쿠폰(900명)을 증정한다. 스마트앱 신규 회원은 1회의 추가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페이를 포함한 간편결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영석 기자